

다윗의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 구성과 다말 내러티브와의 상호 본문적 읽기*

박유미(안양대)

1. 들어가는 말

열 명의 후궁은 사무엘하 15-20장 사이에 잠깐씩 등장하는 인물들로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한 소외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압살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성중심적 해석으로 인해 이들의 이야기를 다윗과 압살롬이 권력을 잃고 얻는 수단으로 보거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해석은 열 명의 후궁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잘 드러내지 못하였고 다윗이 성폭행 피해자인 열 명의 후궁의 피해와 회복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피해자를 소외시킨 가해자 중심 남성 중심의 해석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서도 남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2S1A5B5A17043903)

성 중심 혹은 지도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피해자를 주변화하거나 무시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신역사주의 관점을 사용하여 피해자이지만 소외된 열 명의 후궁을 주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남성 인물들의 행동을 평가하려고 한다.

신역사주의는 문학과 역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는데 전통적으로, 구성된 역사는 안정된 배경을 이루어, 그것에 비추어 불안정한 본문을 읽고 해석했다. 그런데 신역사주의는 문학과 역사 사이의 이러한 구분을 무너뜨린다. 문학과 역사를 이야기로 보고 서로를 형성하는 데 상호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¹ 이 논문에서 신역사주의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배제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중심보다 경계나 주변부를 보려는 특징이다. 신역사주의 연구는 문학작품의 중심을 덜 보고 주변을 더 보는 해석 및 읽기 방식과 자주 연관된다. 신역사주의는 수사학적 전체성 또는 문학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대신에, 한 작품 안에 잠재된 균열, 이면, 무질서한 표시에 주의를 기울인다.² 그리고 지배적인 이미지, 대화, 그리고 인물을 단 하나의 주요 담론으로 통합하려는 경향에 저항하며, 가장자리에 있는 순간적인 언급, 불일치, 답이 없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인다.³ 그리고 이렇게 본문의 가장자리나 파편적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은 본문 안에 있는 긴장과 투쟁에 초점을 두는 것을 쉽게 보여준다. 이런 특징을 가진 신역사주의 관점을 가지고 파편화되고 다윗의 범죄와 나단의 예언과 성취라는 주류 개념으로

1 Steven L. McKenzie & Stephen R. Haynes 엮음, 「최근의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유연회의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23), 115. 원제는 *To Each Its Own Meaning: Recent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2 윗글, 117-118.

3 윗글, 118.

해석되고 무시되어온 열 명의 후궁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핌으로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불일치와 비판의 목소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주류 해석을 비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열 명의 후궁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기 위해 내러티브 비평을 사용할 것인데 세 부분으로 흩어져서 나오는 열 명의 후궁을 중심으로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성하여 해석하고 인물묘사(Characterization)를 하려고 한다. 또한 다윗이 열 명의 후궁에게 한 행동을 평가하기엔 본문의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본문과 유사성을 보이는 미갈 이야기와 다말 이야기와의 상호본문적 해석을 할 것이다. 처음에 논문을 준비할 때는 미갈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갈과의 연관성도 크기에 함께 다루었다.⁴ 다윗이 미갈과 다말에게 한 행동과 열 명의 후궁에게 한 행동의 비교를 통해 다윗이 권력을 위해 여성을 수단화하고 배제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본문을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2.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 구성하기

일반적으로 본문을 내러티브 비평으로 읽을 때 본문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플롯을 구성한다. 예를

4 이 논문은 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논문이기에 제목을 수정하기가 어려워 제목에 미갈을 넣지 못했다.

들어 룯 이야기의 경우 보통 룯이 나오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기를 이야기 단위의 범위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플롯을 구성한다. 그런데 건(D. M. Gunn)은 하나의 내러티브는 앞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딱 정하기 어려운 유연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룯 이야기를 창세기 18-19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룯 이야기의 범위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 또한 하나의 이야기에 하나의 플롯만 있다고 보지 않고 등장인물이 각자 자신의 고유 플롯을 가지고 있고 각 플롯은 거미줄 같은 플롯에서 하나의 뚜렷한 가닥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 이런 건의 제안은 열 명의 후궁이 나오는 본문들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을 수 있으며 중심인물인 다윗과 압살롬의 플롯과 구별하여 열 명의 후궁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플롯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런 건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 부분에서는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를 플롯 구조를 따라 재구성하려고 한다. 열 명의 후궁 이야기는 세 개의 본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본문을 모아 연결해야 이들에 대한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는 각각의 본문의 플롯 단계를 설정하고 본문에 대한 자세한 읽기를 하려고 한다.

1) 발단(삼하 15:16)

여기서 열 명의 첩이 처음 등장한다. 사무엘하 15장 13-16절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히 왕궁에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5 Steven L. McKenzie, & Stephen R. Haynes 엮음,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유연희 외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22), 320. 원제는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6 윗글, 322.

언급된 단락으로 이 단락 맨 마지막에 열 명의 후궁이 나온다. 그런데 열 명의 후궁에 대한 소개가 따로 나오는 부분은 없고 다윗의 모든 가족과 신하가 도망하는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등장한다. 16절은 **הַמֶּלֶךְ וְכָל-בֵּיתוֹ בָּרְגָלָיו וַיַּעֲזֹב הַמֶּלֶךְ אֶת עַשְׂרֵי נָשִׁים פְּלִגְשִׁים לְשֹׁמֵר אֲשֶׁר** (바에체 하멜레크 베콜-베토 베라글라이브 바야아조브 하멜레크 에트 에셰르 나십 필라그쉽 리쉬모르 하바이트)로 직역하면 “왕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 나왔다. 하지만 왕은 열 명의 후궁을 집을 지키기 위해 남겨 두었다”이다. 그런데 ‘남겨두다’로 번역된 동사 ‘עָזַב’(아자브)’는 ‘떠나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에는 이들을 버렸다는 뉘앙스가 강조되는데 뒤에 16장 21절에서 아히도벨은 이 구문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다만 ‘עָזַב’(아자브)’ 대신 ‘דָּדָא, נָמַדָא, שָׁדָדָא’라는 뜻의 ‘נָחָה’(누아흐)’를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버림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남성 왕과 집의 모든 사람 즉, 왕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군사들과 신하들은 반란군을 피해 도망가면서 전혀 싸울 줄 모르는 여성 열 명에게 성을 지키라고 남겨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회권은 이것을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⁷ 그러므로 우리는 후궁 열 명에게 집을 지키라고 남겨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회원은 피난길에 후궁을 모두 이끌고 간다는 것은 심히 거추장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들을 다른 정보통들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남겨두었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⁸ 힐(Andrew E. Hill)은 열 명의 첩은 여부스 왕족의 딸들로 여부스와 이스라엘의 결합을 위해 결혼

7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 (서울: 복 있는 사람, 2009), 192.

8 노회원, 「성서주석: 사무엘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404.

했기에 당시 애급의 정책에 의해 그들의 여행이 예루살렘으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함께 떠날 수 없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⁹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나단 예언의 성취와 연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고의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경우도 있지만¹⁰ 예언의 성취를 위한 필수적 행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¹¹ 스톤(Ken Stone)은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으로 보면 공개적인 성폭행을 실제로 주도한 이는 압살롬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한다.¹² 이런 해석은 열 명의 후궁에 대한 고려 없이 다윗 중심의 해석으로 여성을 예언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도 이런 입장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다윗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그 목적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합당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족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와중에 열 명의 후궁만 딱 꼬집어 두고 간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윗이 자신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목적은 그곳이 여전히 자기 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집을 지키다’라는 것은 ‘다윗의 소유임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열 명의 후궁을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을 남성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주

9 하지만 본문은 이들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힐의 견해를 지지하기 어렵다. Andrew E. Hill, “On David’s “Taking” and “Leaving” Concubines (2 Samuel 5:13; 15:16)” *JBL* 125, no. 1 (2006), 136.

10 Andrew E. Steinman, *2 Samuel*,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20), 293.

11 Walter Brueggemann, 「현대성서주석: 사무엘상, 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50. 원제는 *First and Second Samue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12 Ken Stone, “사무엘기 상 하”, 「퀴어성서주석」, 데린 게스트, 로버트 고스, 모나 웨스트, 토마스 보헤치 엮음, (퀴어 성서 주석 번역출판위원회 옮김),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21), 358. 원제는 *The Queer Bible Commentary I Hebrew Bible*, (London: SCM Press, 2006).

제는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각각 흩어진 열 명의 후궁 에피소드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무엘하 15장 16절에서 이들의 남겨짐은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의 발단으로 이 일로 인해 열 명의 후궁은 점점 더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된다.

2) 전개(삼하 16:20-21)

사건은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하여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차지한 후에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20-21절은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의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압살롬은 그의 책사 아히도벨에게 무엇을 할지 조언해 달라고 요청한다. 아히도벨은 밋세바의 할아버지로¹³ 원래 다윗의 책사였지만(삼하 15:2)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책사로 활동하였다. 압살롬의 질문에 아히도벨은 ‘집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들어가라’하라고 명령한다. 21절의 아히멜렉의 말에서 동사 ‘**ניב**(보)’는 칼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으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권유나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그 이유는 21절 후반절에 언급되는데 첫째는 압살롬이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될 것이고 둘째는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서 동사 **נִצַּק**(바아쉬)는 기본적으로 ‘악취를 내다’로 출애굽기 7장 18절에서 생선이 썩는 냄새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하여 ‘불쾌하다. 추악하다, 증오하다’로 번역되는데 매우 강한 혐오를 표현하는 단어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게 되면 압살롬은 다윗

13 삼하 11:3에서 밋세바는 엘리암의 딸로 소개가 되는데 삼하 23:34에서 엘리암은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로 소개되므로 밋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된다.

에게 엄청난 증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¹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증오를 받는 대가로 압살롬의 권력은 더 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확실하게 갈라선 것을 표시한다. 노회원은 이것을 압살롬이 다윗과의 사이에 결정적인 못질을 한 것이라 표현한다.¹⁵ 이렇게 다윗과 관계를 끊어냄으로 이제 다윗 왕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며 압살롬이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압살롬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이다.¹⁶ 다윗의 후궁을 이용해 압살롬의 권력을 강화하자는 아히도벨의 제안은 궁 안에 있던 다윗 후궁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절정(삼하 16:22-23)

압살롬이 후궁을 실제로 성폭행한 장면으로 내러티브의 절정에 해당한다.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은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을 성폭행하는 장소로 옥상을 택한다.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 동침을 위한 장막을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들어간다. 본문은 ‘성폭행하다’라는 표현보다 ‘들어가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기서 압살롬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압살롬과 성관계를 한 여성들의 동기가 묘사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⁷ 그는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행하였다. 그리고 본문은 후궁들을 ‘그의 아버지의 후

14 이 문장은 니브아쉬타 에트-아비카(נִבְּאֵשְׁתָּ אֶת-אֲבִיכָא)로 이 동사가 니팔 완료 2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증오를 받는다’로 번역된다.

15 노회원, 「성서주석: 사무엘하」, 408.

16 이태훈,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편집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304.

17 Stone, “사무엘기 상 하”, 359.

궁들(פְּלִגְרוֹת אֲבִיב) 필라그셰 아비브)’이라고 표현하므로 압살롬의 패륜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의 열 명의 후궁을 공개적으로 성폭행한 것에 대해 모우크즈코(Marg Mowczko)는 성경에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레 18:8)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는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해 다윗이 살아 있을 때 힘없는 열 명의 후궁과 동침했다고 지적하며 압살롬을 찬탈자로 평가한다.¹⁸ 즉, 왕의 아내와 후궁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의 아내와 동침함으로써 왕을 대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스톤은 이 구절을 남성 인물이 여성과의 성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남성 인물과 위신과 권력을 다투는 성서 본문 중 하나라고 보면서 다윗을 모욕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다.¹⁹ 앤더슨(A. A. Anderson)은 이 행동이 새로운 왕의 왕권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단지 다윗이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해석하였다.²⁰ 하지만 플레밍(Erin E. Fleming)은 여성의 몸이 정치적 권력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²¹

하지만 나단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신학적 해석도 만만치 않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데 브루그만은 후궁들이 궁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나단의 말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²² 이태훈도 압살롬

18 Marg Mowczko, "The Disturbing Story of David's Ten Concubines" Exploring the biblical theology of Christian egalitarianism, (August 21, 2021), 1. in <https://margmowczko.com/davids-ten-concubines/>

19 Stone, "사무엘기 상 하", 357.

20 A. A. Anderson, 「사무엘하」(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360. 원제는 2 Samuel (Dallas: Word Books, 1989).

21 Erin E. Fleming,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the Story of King David* (Dissertation: John Hopkins University, 2013), 226.

22 Brueggemann, 「현대성서주석: 사무엘상, 하」, 450.

의 성폭행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
이 선언하신 심판이 실현된 것으로 설명한다.²³ 포켈만(Jan P. Fokkelman)
이 압살롬이 장막을 세운 곳이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한 곳으로 추정하
는 것을 근거로²⁴ 앤더슨은 저자의 마음 속에 다윗의 범죄와의 연관성
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²⁵ 하지만 이에 대해 솔츠(Susanne Scholz)는 만
약 선지자가 사무엘하 16장 사건을 예언했다면, 예언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 명의 첩들의 성
폭행에 책임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²⁶ 그리고 스톤은 만일 12장의
나단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면 이 일을 주도한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여
호와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이
해석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를 명백
히 받아들인다는 점(사무엘상, 하 모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²⁷ 또한 솔츠도 이런 해석이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
은 남성 중심의 해석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남성 중심주의가 후궁
들의 몸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차 없이 부수었다고 주장한다.²⁸

이런 압살롬의 행위는 신명기법에서 금지된 것인데 현재 상황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이고 압살롬이 열 명의 후궁을 성폭행한 것
은 일종의 전쟁 성폭력이다. 성폭행은 종종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으
며 이런 종류의 폭력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사용하였다(삿 5:30, 애 5:11,

23 이태훈,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293.

24 Jan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English: Brill, 1981), 210.

25 Anderson, 「사무엘하」, 361.

26 Susanne Scholz, *Sacred Witness: rape in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0), 78.

27 Stone, 「사무엘기 상 하」, 359.

28 Scholz, *Sacred Witness*, 80.

사 13:16).²⁹ 그런데 신명기 21장 10-14절은 전쟁 성폭력에 대해 금지하며 포로된 여성을 취할 때는 아내로서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명기 21장 14절에서 전쟁 포로 여성들을 취한 것은 일종의 성폭행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아내처럼 대우하다 내보낼 경우에는 자유롭게 보내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행동은 신명기법을 명백히 어긴 행위이다.

그리고 절정의 마지막 부분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신탁과 같다는 부연 설명이 나온다. 이 문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는 압살롬이 패륜적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 방법이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이라고 할지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의 권위를 누르고 압살롬의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전략가는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을 떠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 여기서 선악의 판단은 없다.³⁰ 둘째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 대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장면도 없다. 대신 그는 사건 고비마다 아히도벨에게 물었고 그의 의견을 따랐다. 사무엘서의 화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신탁과 같다는 말을 통해 압살롬은 하나님 대신 아히도벨을 하나님처럼 믿고 그를 의지하여 반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가 여기에 슬쩍 다윗도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문은 다윗이 유독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과(삼하 15:31, 34) 이어지는 17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

29 Marg Mowczko, "The Disturbing Story of David's Ten Concubines", 1.

30 임효명, 「사무엘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33.

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락을 물리치라고 압살롬이 명령하였다는 설명이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즉, 다윗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그를 가장 두려워하였고 다윗은 그의 모략을 깨기 위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압살롬의 행위가 악하다고 판단하셨기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다. 인간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히도벨을 의지한 압살롬의 성폭행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결말(삼하 20:3)

이 부분은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의 결말 부분으로 성폭행 사건 이후 열 명의 첩의 운명에 대해 언급한다.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은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직후이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왕궁에 남아있던 후궁들을 감금하고 생과부로 살게 한 것이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모리슨(Craig Morrison)은 다윗의 행위를 돌봄으로 본다. 모리슨은 그 근거로 히브리어 동사 **כָּבַד**(쿨)은 바르실래가 다윗에게 호의를 제공하고 다윗이 바르실래에게 호의를 제공한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³¹ 아울드(Graeme Auld)도 이 단어에 근거하여 과부처럼 만든 것은 맹백하게 평안함을 만든 것이라고 해석한다.³²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플레밍은 이 본문의 요점은 압

31 Craig & OCarm Morrison, *2 Samuel*, (Minnesota : Liturgical Press, 2013), 266-267.

32 Graeme Auld, *I and II Samuel: A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561.

살롬이 범한 후궁들의 성적 격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³³ 즉, 피해자인 후궁들을 오히려 범죄자 내지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스미스(Richard G. Smith)는 후궁들이 생과부로 보내게 된 것은 부부 방임이며 부당한 반응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운명을 묘사하는 방식은 수사학적으로 과부를 억압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다윗을 과부와 같은 약자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³⁴ 그린(Barbara Green)은 열 명의 후궁을 가둔 사건은 다윗의 무능력에 대한 또 다른 사례라고 보았고 여성들은 르비보셋처럼 덜 정당하게 대접받았다고 평가한다.³⁵ 버겐(Robert D. Bergen)도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의 삶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해석하며 다윗을 비판한다.³⁶ 이렇게 한 질로 요약된 다윗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존재하는데 어떤 견해가 더 타당한지 본문의 해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예루살렘 궁전에 오자마자 다윗은 왕궁을 지키게 했지만 결국 압살롬에게 성폭행당한 열 명의 후궁을 잡아서 (חַקְלָה 라카흐) ‘별실’에 두는데 ‘בֵּית מִשְׁמֶרֶת’ (베트-미쉬메레트)’는 직역하면 ‘감시하는 집, 지키는 집’으로 감옥과 같이 감금을 위한 집이다. 그러므로 후궁들을 감옥과 같은 곳에 두었다는 것은 그녀들을 감금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녀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문장은 וְאֵלֵיהֶם לֹא־בָא (바알레헴 로-바)로 일단 동사 앞에 ‘그들

33 Fleming, *The Politics of Sexuality*, 231.

34 Richard G. Smith, *the Fate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during David's reign: rereading the court history and its ethics according to 2 Samuel 8:15-20:26*, (New York: T&T Clark, c2009), 219-220.

35 Barbara Green, *David's capacity For Compassion: A Literary Hermeneutical Study of 1-2 Samuel*, (New York : T&T Clark, 2017), 242.

36 Robert D. Bergen, *1, 2 Samuel*, (Nashville, Tennessee : Broadman & Holman Publishers, c1996), 435.

에게(אלהם 알레헴)’를 돕으로 열 명의 후궁에게 남편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문장은 אֲלֻמְנוֹת חַיִּית מִתָּן וַתְּהַיְיֶנָּה צָרֻרוֹת עֲרִיּוֹם מִתָּן(바티호예나 켄루르트 아드-욘 무탄 알메누트 하유티)에서 צָרֻרוֹת(켄루르트)로 ‘묶다, 압제하다’라는 뜻의 동사 צָרַר(짜라르)의 칼 수동 분사형으로 ‘묶인, 억압당한’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그녀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묶여 있었다’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을 감옥 같은 곳에 가두고 음식만 제공하며 그녀들을 과부와 같은 상태로 남은 생을 살게 강요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 감금과 아내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다윗의 행동이 후궁들을 잘 돌보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열 명의 후궁을 부당하게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을 율법을 따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스타인맨(Andrew E. Steinman)은 며느리와의 관계 맺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레 18:15) 다윗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본다.³⁷ 노회원도 다윗이 신명기 24장 1-4절의 일단 다른 남자에게 들어갔다가 돌아온 여자는 결코 원래 남편이 취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압살롬에게 성폭행당한 후궁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며 미갈이 아이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였다.³⁸ 하지만 노회원의 견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미갈을 데리고 온 다윗의 행동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약점으로 보았다. 만일 다윗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발리엘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일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를 데리고 온 후에 그녀와 잠자리를 안한 것은 율법을 지킨

37 Andrew E. Steinman, *2 Samuel*,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20), 387.

38 노회원, 「성서주석: 사무엘하」, 464.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철저히 미갈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다윗의 열 명의 후궁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레위기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 사건에 신명기 법을 적용하려면 신명기 22장 25-26절의 강제로 성폭행당한 약혼녀나 유부녀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말라는 법을 적용하여 후궁들을 이전처럼 아내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므로 다윗의 행동을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윗에게 열 명의 후궁은 자신이 모욕당한 살아있는 증거이기에 압살롬에게 가야할 분노와 처벌을 그녀들에게 대신 쏟아 부은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다윗은 흔들렸던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궁들의 목소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열 명의 후궁을 인격체가 아닌 수단으로 여겼다.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후궁들을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압살롬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런 힘없는 여성들을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열 명의 후궁은 남편인 다윗의 손에 감옥에 갇혀 남은 평생 생과부처럼 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3. 열 명의 후궁 인물묘사(Characterization)

우리는 흩어진 본문을 플롯 구조를 따라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플롯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의 재구성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열 명의 후궁 내러티브처럼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 아닌 수동적으로 당한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위의 플롯 구조에서 보듯이 사건은 다윗과 압살롬에 의해 주도되고 열 명의 후궁은 오직 명령의 대상으로 아무 말 없이 따르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단락에서는 수동적으로 등장한 열 명의 후궁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들의 모습을 재구성해 보려고 한다.

열 명의 후궁은 발단인 사무엘하 15장 1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후궁 열 명’이라 언급될 뿐 이들에 대한 다른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기에 이들의 이름이나 출신지나 다윗과의 관계나 그녀들의 자녀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그녀들이 여부스 왕족의 딸들이었기에 남겨졌다는 힐의 주장은 본문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녀들의 정체성은 다윗에게 속한 후궁들이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이들이 남겨진 이유이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남겨졌다. 열 명의 여성이 압살롬의 군대를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키기 위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둔 것은 그곳이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다. 즉, 열 명의 후궁은 예루살렘 궁전이 다윗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당한 것이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을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 모든 ‘그의 집의 모든 사람’이 다윗과 함께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열 명

의 후궁은 다윗 집의 사람에서 제외된 것이다. 본문에서 왕과 모든 가족이 ‘나온 것(אֲשֶׁר) 바예체)’과 왕이 이들을 ‘버린 것(אֲשֶׁר) 바야아조브)’을 대조하고 다윗 집의 모든 사람에서 열 명의 후궁을 구별함으로 그녀들이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버려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녀들은 다윗의 가족에서 배제되고 다윗의 집이라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겨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이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이 성폭행당할 것을 알지는 못했다. 압살롬이 성을 차지하더라도 아버지인 자신의 후궁은 취하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들을 남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압살롬이 성을 정복한 후에 그녀들을 죽이거나 성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그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생각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에 반란으로 왕궁이 정복당했을 때 왕비와 후궁들이 살해당하거나 성폭행당하는 일은 비밀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압살롬이 그녀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들을 위협에 방치한 것이다. 이렇게 열 명의 후궁은 가장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장소에 자신들의 보호자인 남편에게 버려졌다. 그리고 이들의 버려짐은 본문이 열 명의 후궁의 반응에 침묵하며 철저히 이들을 무시함으로 더 강화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체성은 단순히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서 배제된 버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버려짐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열 명의 후궁에 대한 언급은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다시 나온다. 여기서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대화 속에서 압살롬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후궁들을 성폭행하라고 아히도벨이 제안한다. 아히도벨은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후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제안으로 인해 열 명의 후궁은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의 운명은 복잡하게 된다. 아히도벨은 후궁들을 ‘당신의 아버

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15장 16절에서 다윗이 한 말과 거의 유사하다. 이 말은 아히도벨이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을 남겨둔 의도를 알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다윗이 이들을 이용한 것처럼 자신도 이들을 이용하겠다고 말한다. 여기서도 열 명의 후궁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열 명의 후궁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폭행 당하는데 아히도벨의 계책을 들은 압살롬이 이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옥상에 천막을 치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들어갔다'이다. 여기서 천막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문맥상 성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공개적인 장소인 옥상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행하였다. 본문은 아주 실용적으로 아히도벨의 계획과 압살롬의 실행만을 언급하고 있다. 주어는 성폭행을 실행하는 사람들로 압살롬을 위해 천막을 펼치는 사람들과 압살롬이다. 여기서 열 명의 후궁은 공개적으로 성폭행당하는 피해자가 되었다. 여기서도 성폭행당하는 열 명의 후궁의 반대하는 말이나 반항적인 행동이나 성폭행당할 때의 수치심과 공포와 같은 후궁의 목소리나 이런 압살롬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후궁들은 오직 성폭행의 대상으로만 언급된다. 이렇게 열 명의 후궁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압살롬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당하는 존재였고 쓸모를 다하자 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성폭행당한 후궁들의 상황은 다윗이 돌아온 후에 더 비참해진다. 후궁들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무엘하 20장 3절은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 직후의 상황으로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열 명의 후궁을 잡아 평생 감옥 같은 곳에 가두고 다시는 그녀들을

찾아가지 않는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했던 흔적 지우기의 첫 번째 과제로 압살롬에게 성폭행당한 후궁들을 감금하고 이에 더해 이들에게 음식만 제공할 뿐 그녀들을 찾지 않고 생과부로 살게 만들었다. 이것은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을 왕궁에서 제거해야 할 죄인으로 여겼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다윗은 성폭행당한 열 명의 후궁에게 매우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열 명의 후궁은 이렇게 평생 죄인으로 격리되고 배제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데 열 명의 후궁이 감당해야 했던 처벌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했다. 다윗의 부당성은 첫째로 화자의 설명에서 나타난다. 화자는 열 명의 후궁이 감옥에 감금되었고 평생을 생과부로 억압당하며 지냈다는 표현을 통해 열 명의 후궁이 자유도 빼앗기고 아내의 권리도 빼앗긴 불행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가 이들의 마지막을 생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므로 이들의 부당한 삶을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 반역 사건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열 명의 후궁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켜 왕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후궁들을 성폭행하는 등,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와 확연하게 다르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가는 군대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고 죽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한다(삼하 18:5).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성문 위로 올라가 압살롬을 애절하게 부르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삼하 18:33). 또한 그는 압살롬을 지지한 유다 지파 사람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아마사는 용서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기도 한다(삼하 19:11-13). 이렇게 화합을 위해 적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고 반역 주동자인 압살롬의 죽음도 애도하던 다윗이 유독 열 명의 후궁에게는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열 명의 후궁 입장에서는 다윗의 귀환이 오히려 그녀들

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에 다윗의 성공과 그녀들의 삶은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열 명의 후궁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려지고 이용당하는 인물이다.

4. 다윗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상호본문 읽기

상호본문성(Intertextuality)이란 그 본문의 맥락을 이루는 경계선의 밖에 있는 본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읽는 것이다. 열 명의 후궁 이야기는 아주 짧은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정보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이들에 대한 해석이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야기를 비슷하게 성폭행을 당한 후 격리된 다말의 이야기나 다윗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일생을 보낸 미갈 이야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읽을 때 좀 더 풍부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 글에서 상호 본문 읽기를 통해 드러내려는 것은 열 명의 후궁에 대한 부당한 다윗의 행동이 일회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 전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일관된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사무엘하 3-6장에 나오는 미갈 이야기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를 상호 본문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1) 미갈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다. 사울은 다윗이 도망하자 미갈을 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시킨다(삼상 25:44). 그러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스보셋에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한다(삼하 3:14). 왕의 사위라는 지위

는 다윗 왕권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³⁹ 이 스보셋은 남편과 평온하게 살고 있던 미갈을 그녀의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다윗에게로 보낸다(삼하 3:15). 16절에서 발디엘을 ‘그녀의 남편(נִשְׁתָּהּ 이샤흐)’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갈과 발디엘이 부부였다는 것을 사무엘서의 화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그녀의 남편이 계속해서 울면서 그녀의 뒤를 따라 바후림까지 왔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줌으로서 다윗의 요구와 이에 따른 이스보셋의 행동이 미갈과 바후림에게 매우 잔인하고 부당한 처사였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계속해서 울면서’⁴⁰라는 표현은 발디엘이 미갈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보내기 싫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다윗은 다른 남자와 살았던 미갈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데려온 것이다.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왕권이 완전히 안정되었을 때 다윗은 미갈과 다툼을 벌인 뒤 그녀를 버린다. 법궤 운반시 보인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을 때 다윗은 미갈을 같이 비난하였고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는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하며 미갈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고 미갈도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살았다는 의미이다. 미갈과 열 명의 후궁 이야기에서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다른 남자와 동침했던 아내들이라는 것과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냈다는 것이다.

39 유윤중, “이새의 아들인가 사울의 아들인가?: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삼상 16-26 장)에서 본 사무엘상 17:55-56절”, 『구약논단』 87(2023), 164.

40 ‘계속해서 울면서’로 번역한 וּבְכִיָּה וּבְהִלָּה(할로크 우바코)에서 כִּיָּה(할라크)의 부정사 절대형 כִּיָּה(할로크)는 ‘계속해서’라는 부사로 해석되는데 연속적인 행동이나 반복을 표현하기 위한 부정사 절대형의 용법이다. Ronald J. Williams,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김영욱 옮김) (서울: 그리스심, 2012), 125. 원제는 *Williams' Hebrew Syntax*,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7).

알터(Robert Alter)은 열 명의 후궁 이야기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다른 아내 미갈과 마주쳤을 때의 비참한 메아리가 있으며 그녀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문구를 통해 두 이야기의 연결성을 주장하였다.⁴¹ 다른 남자와 동침한 아내들, ‘죽는 날까지’라는 표현을 통해 두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을 감금한 것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미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다윗의 행동을 고작 질투하고 상처받은 남편의 행동 정도로 치부할 위험성이 있다. 노회원은 심지어 다윗의 행동을 옹호하는데 다윗이 신명기 24장 1-4절의 일단 다른 남자에게 들어갔다가 돌아온 여자는 결코 원래 남편이 취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압살롬에게 성폭행당한 후궁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며 미갈이 아이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며 두 이야기를 연결하였다.⁴² 하지만 노회원의 견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미갈을 데리고 온 다윗의 행동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약점이 있다. 만일 다윗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발디엘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일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그녀를 데리고 온 후에 그녀와 잠자리를 안한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철저히 미갈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는 것을 반증이다. 그러므로 미갈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다윗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두 이야기를 연결하여 미갈과 후궁들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바론은 미갈과 후궁들을 성적 부정(infidelity)으로 인해 평생 아이가 없는 상태로 남은 운명이 평행을 이룬다고 보았다. 바

41 Robert Alter, *(The) David story :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W. Norton, c1999), 322.

42 노회원, 「성서주석: 사무엘하」, 464.

론(Robert Barron)은 항상 성적 결합과 충실성은 여호와 호의의 핵심적인 표시자로 성관계 중단을 도덕적 영적 실패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³ 이 주장은 미갈과 열 명의 후궁이 성적 부정을 저지른 죄인이고 다윗은 이들을 성관계 중단을 통해 징벌한 심판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미갈과 열 명의 후궁이 다윗 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맞지만 바론의 주장처럼 본인의 의지로 행한 성적 부정이나 불성실은 아니다. 그리고 열 명의 후궁은 전쟁 중 강제로 성폭행당한 것임으로 그녀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신명기 22장 25-26절의 강제로 성폭행당한 약혼녀나 유부녀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죄인으로 보는 바론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미갈은 아버지에게 의해 재혼한 남편과 산 것으로 오히려 미갈과 밧디엘의 관계가 다윗과 미갈의 관계보다 더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궁들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아내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다윗의 적절한 처신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들을 죄인으로 여기며 부당하게 대우한다. 그러므로 열 명의 후궁 이야기와 미갈 이야기 모두 그녀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두 이야기는 다윗이 열 명의 후궁에게 매우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더욱 강화시킨다. 다윗은 열 명의 후궁을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처럼 미갈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쓸모가 다 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자 다윗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남편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여 그들이 생과부로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미갈 이야기와 열 명의 후궁 이야기를 상호적으로 해석할 때 다윗이 아내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이용이 끝나면 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43 Robert Barron, *2 Samuel*, (Grand Rapids : Brazos Press, 2015), 174.

2) 다말

사무엘하 13장의 다말 이야기는 압살롬 반란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암논이 이복동생인 다말에게 흑심을 품었지만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암논에게 다말을 보낸 것이 다윗이다. 즉, 암논에게 다말을 성폭행할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이 암논의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런 인과성 외에도 두 이야기 사이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모티프와 주제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이야기의 상호본문적 읽기를 통해 다윗이 열 명의 후궁에게 행한 행동의 부당성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첫째로 두 사건 모두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둘 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향해 가진 마음의 병은 힘을 가진 남성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서 오는 화병으로 여성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소유하고 쟁취하려는 왜곡된 욕망이다.⁴⁴ 그리고 암논은 가장 사랑 받는 장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이런 권력을 과시한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행하였다.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을 그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또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성폭행을 한 두 아들의 모습은 권력을 위해 미갈을 이용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44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2018), 135.

둘째로 두 사건 모두에 암논과 압살롬을 돕는 지혜자들이 등장한다. 암논 사건에서 등장하는 지혜자는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으로 사무엘서 화자는 그를 ‘매우 지혜로운 자(מְחִימָה מְאֹד אִישׁ חָכָם מְעֹד)’로 소개한다. 그는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라고 조언하며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준다, 그리고 암논은 그의 조언을 충실하게 따랐기에 성공적으로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었다. 또한 압살롬 사건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행하라고 제안한 사람도 지혜자인 아히도벨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질 만큼 뛰어난 지략가이며 지혜자였다(삼하 16:21). 그렇기에 아히도벨의 제안을 듣자마자 압살롬은 그 제안을 즉시 실행한다. 이렇게 두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혜자라고 불리는 남성들은 여성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으며 희생된 여성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무심한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은애는 요나답이 지혜자란 묘사가 칭찬이 아니라 교활한 책략가, 모사꾼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았다.⁴⁵ 그들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남은 생이 가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지혜를 오직 남성 권력자의 요구와 권력 강화를 위해서만 사용한 권력 지향적 인물들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악한 지혜자에 의해 성폭행이 사건이 벌어졌다.

셋째로 두 사건 모두 다윗이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다윗은 암논의 방에 다말을 보내어 암논이 성폭행할 기회를 준 조력자였다. 또한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후궁들을 남겨 압살롬이 그녀들을 성폭행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두 사건 모두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말이 눈앞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는 암논

45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3(2019), 226.

의 수상한 요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암논의 요청을 따라 준다. 암논에 대한 편애로 인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할 때도 다윗은 이들을 남겨 놓게 되면 이들이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고 갔다. 압살롬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어리석음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로 두 사건 모두에서 다윗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암논 사건에서 다윗은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말이 채색옷을 찢고 부르짖으며 암논의 범죄사실을 온 궁전에 알렸고 결국 다윗의 귀에도 들어간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암논은 처녀를 성폭행하는 죄와 근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 처녀 성폭행 건으로 보면 결혼을 시키거나 배상을 하게 해야 했다(신 22:28-29). 그리고 근친상간의 죄를 적용하면 암논은 민족 앞에서 끊어질 죄이다(레 20:17). 그런데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은 열 명의 후궁을 성폭행한 압살롬에 대해서는 화내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는 압살롬의 반란군을 치러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그를 반드시 살려달라고 요청한다(삼하 18:5). 하지만 이런 다윗의 의도와 달리 두 가해자는 모두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암논은 압살롬의 손에 죽고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는다. 이렇게 다윗은 성폭행을 저지른 두 아들의 죄를 덮고 살리려고 하였지만 어느 아들도 살리지 못하고 두 아들은 죽게 된다.

다섯째로 두 이야기 모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 열 명의 후궁의 이야기에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데 이는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말의 이야기에서는 다말이 목소리를 내고 성폭행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삼하 13:12) 성폭행을 당한 후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끼었

고 울부짖음으로 자신의 부당한 고통을 알리고⁴⁶ 정의를 세워달라고 외쳤지만(삼하 13:19) 그녀의 목소리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압살롬은 암논이 오빠이니 지금은 잠잠하라고 하면서 다말의 입을 막는데 이것은 암논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장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즉, 압살롬은 다윗이 암논을 처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 이는 계속해서 암논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 다윗의 미움을 받을 것을 걱정한 것이다.⁴⁷ 여기서 압살롬이 다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암논의 처벌이나 다말의 회복보다는 다윗에게 미움 받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도 다말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윗을 포함하여 다윗 집안의 남성들은 모두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였다.

여섯째는 두 이야기 모두 성폭행 피해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된 삶이다. 열 명의 후궁은 위로받지 못했고 다윗에게 버림받은 아내로 평생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지내며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다말의 처지도 이들과 유사한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것이다. ‘처량하게’로 번역된 **שָׁמְמָה**(쇼메마)는 ‘고립되다’라는 뜻의 동사 **שָׁמַם**(샤멤)의 칼 여성 분사형으로 ‘고립된 여자 혹은 고립된 상태로’로 번역할 수 있다. 즉,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고립된 신세로 살아가게 된다(삼하 13:20). 심지어 다윗은 다말의 이런 불쌍한 처지를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말이 그냥 압살롬의 집에서 고립된 채 지내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것은 후궁들이 감옥에 갇힌 채 평생 산 것과 같은 결론이다. 이에 대해 에반스(Mary J. Evans)는 열 명의 후궁

46 윗글, 233

47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147.

도 다말도 모두 평생 감금된 것을 지적하며 성폭행 피해자에게 남은 곁과는 비인간화라고 비판한다.⁴⁸

상호본문적 읽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후궁들의 이야기는 미갈의 이야기와 다말 이야기의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모아놓았다는 것이다. 후궁들은 미갈처럼 다윗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권력을 되찾자 결국 버려졌고 미갈처럼 생과부로 자식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후궁은 다말처럼 남성들의 권력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고 보호자와 공동체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며 고립되어 평생을 살아간 비극적 운명의 사람들이다. 즉, 후궁들의 이야기는 미갈과 다말의 비극을 모두 담고 있으며 목소리조차 갖지 못했기에 이들은 다윗 이야기에서 등장한 여성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다.

둘째, 다윗은 여성들을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수단화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미갈과 열 명의 후궁 이야기에서 등장한 다윗의 모습은 여성을 수단화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윗은 다른 남성과의 관계나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여성들과 연결된 이야기에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한 경우는 아비가일 외에는 없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의 성폭행 사건에서도 아들만 위하고 딸의 비극적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미갈, 다말, 열 명의 후궁에 대한 상호본문적 해석은 다윗이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수단화하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

48 Mary J. Evans, *1&2 Samuel,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Carlisle, Cumbria: Paternoster Press, 2000), 224.

여준다.

셋째, 사무엘서의 화자는 미갈, 다말, 후궁 등 이용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윗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그들을 이용하고 버리고 고립시켰지만 화자는 이들이 다윗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에반스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운명에 대한 관심은 저자와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 없고 희생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⁴⁹ 본문이 이런 태도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세계관에 대해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과부의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장기판 줄로 여겨지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⁰ 즉, 주인공 서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균열시키며 등장하는 소외된 자, 피해자의 모습과 이들이 당한 부당함에 대한 공통된 기록은 화자의 관점이 주인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록은 지금까지 주인공 중심의 읽기, 남성 가해자 중심의 읽기에 대한 비판적 읽기의 근거를 제공한다.

5. 결론

열 명의 후궁 이야기는 그동안 압살롬의 반란에 속한 작은 에피소드로 주로 나단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왔다. 이런 해석의 과

49 윗글, 224.

50 Mary J. Evans, 「사무엘: 사람, 잠재력, 정치, 권력」 (서울: IVP, 2020), 349. 원제는 *The Message of Samuel: Personalities, Potential, Politics and Power*, (London: Inter-Varsity Press, 2004).

정 속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후궁들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의 주변인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권력의 다툼 속에서 잠깐 등장하고 이용당하고 사라졌기에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열 명의 후궁 이야기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묶고 이들을 인물화였고 이를 통해 이들의 모습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묶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다윗과 압살롬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인물묘사를 통해 열 명의 후궁이 철저히 수단으로 이용당하였고 불명예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윗에게 갇히고 버려진 비인간화된 존재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미갈과 다말 이야기와의 상호본문적 읽기를 통해 다윗이 여성을 수단화하고 격리하고 비인간화하는 모습이 그의 특징 중의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었다. 다윗은 여성 인물과의 관계에서 여성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화자가 비극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언급한 것은 이들을 이렇게 만든 다윗에게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열 명의 후궁 이야기는 다윗의 잘못에 대한 나단의 심판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심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다윗으로 인해 피해 받은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위치한다는 것은 다윗 왕의 치세가 결국 부정적으로 끝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이런 비판을 통해 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와 주변인을 향한 공의와 사랑에 있음을 암시하며 이것이 우리가 여성과 약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 (서울: 복 있는 사람, 2009).
- 노희원, 「성서주석: 사무엘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2018), 125-155.
- 유윤중, “이새의 아들인가 사울의 아들인가?: 사울과 다윗의 갈등 내러티브(삼상 16-26장)에서 본 사무엘상 17:55-56절”, 「구약논단」 87(2023), 152-1183.
-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3(2019), 217-245.
- 이태훈, 「사무엘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편집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임효명, 「사무엘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Anderson, A. A., 「사무엘하」 (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제는 2 *Samuel* (Dallas: Word Books, 1989).
- Brueggemann, Walter, 「현대성서주석: 사무엘상, 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는 *First and Second Samue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Evans, Mary J., 「사무엘: 사람, 잠재력, 정치, 권력」, (서울: IVP, 2020). 원제는 *The Message of Samuel: Personalities, Potential, Politics and Power*, (London: Inter-Varsity Press, 2004).
- McKenze, L. Steven & Haynes, R. Stephen 엮음,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유연희 외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22). 원제는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McKenze, L. Steven & Haynes, R. Stephen 엮음, 「최근의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유연희외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23). 원제는 *To Each Its*

- Own Meaning: Recent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 Stone Ken, “사무엘기 상 하”, 「퀴어성서주석」, 데린 게스트, 로버트 고스, 모나 웨스트, 토마스 보헤치 엮음, (퀴어 성서 주석 번역출판위원회 옮김), (서울: 무지개신학연구소, 2021). 원제는 *The Queer Bible Commentary I Hebrew Bible*, (London: SCM Press, 2006).
- Alter, Robert,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 W.W. Norton, c1999).
- Auld, Graeme, *I and II Samuel: A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Barron, Robert, *2 Samuel*, (Grand Rapids : Brazos Press, 2015).
- Bergen, Robert D., *1, 2 Samuel*, (Nashville, Tennessee : Broadman & Holman Publishers, c1996).
- Caster, Suzanne E., “Resisting rape culture: The ten concubines of 2 Samuel 15-20 and #MeToo”, *Review and Expositor* 117(2), (2020), 281-287.
- Evans, Mary J., *1&2 Samuel,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tary*, (Carlisle, Cumbria: Paternoster Press, 2000).
- Firth, David G., *1 & 2 Samuel*, (Downers Grove : InterVarsity, 2009).
- Fleming, Erin E.,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the Story of King David* (Dissertation: John Hopkins University, 2013).
- Fokkelman, Jan P.,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English: Brill, 1981),
- Green, Barbara, *David's capacity For Compassion: A Literary Hermeneutical Study of 1-2 Samuel*, (New York: T&T Clark, 2017).
- Gunn, D. M., *Story of King David Genre and Interpretation*, (Sheffield, Eng.: Dept. of Biblical Studies, University of Sheffield, 1978).
- Hertzberg, Hans W., *I & II Samuel :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64).
- Hill, Andrew E., “On David’s “Taking” and “Leaving” Concubines (2 Samuel 5:13; 15:16)” *JBL* 125, no. 1 (2006), 129 – 50.
- McCarter, P. Kyle, *II Samuel: A new translat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 Morrison, Craig & OCarm, *2 Samuel*,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13).
- Mowczko, Marg, “The Disturbing Story of David’s Ten Concubines” Exploring the

biblical theology of Christian egalitarianism, (August 21, 2021). in <https://margmowczko.com/davids-ten-concubines/>

Scholz, Susanne. *Sacred Witness: rape in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MN : Fortress Press, 2010).

Smith, Richard G., *The Fate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during David's reign: rereading the court history and its ethics according to 2 Samuel 8:15-20:26*, (New York: T&T Clark, c2009).

Steinman, Andrew E., *2 Samuel*,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20).

The IVP WOMEN'S BIBLE COMMENTARY, eds, Kroeger, Catherine Clark & Evans, Mary J., (Intervarsity Press, 2001).

검색어

열 명의 후궁, 다말, 다윗, 압살롬, 성폭행, 상호분문성

Composition of David's Ten Concubines Narrative and Intertextual Reading with Tamar's Narrative

You-Mee Park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constructs a single narrative from the scattered stories of ten concubines, presenting them as distinct individuals. This approach allows us to focus on their plight. By weaving their stories into a cohesive narrative, we could effectively demonstrate how they were exploited and ultimately abandoned by David and Absalom. The characterization further reveals that these ten concubines were used merely as tools, left dehumanized, imprisoned by David, and discarded without ever recovering their honor or losses.

Through an intertextual reading with the stories of Michal and Tamar, it becomes clear that David's character includes the tendency to instrumentalize, isolate, and dehumanize women. David clearly exhibits a male-centric and patriarchal mindset in his relationships with women, feeling no remorse for exploiting and discarding them. The author's mention of these tragic female figures serves to highlight David's severe wrongdoing in causing their suffering.

Therefore, the story of the ten concubines should not be dismissed as merely the fulfillment of Nathan's prophecy of judgment against David, or as evidence that God invariably brings about God's spoken judgments. Instead, the indifference and unjust treatment inflicted upon these

www.kci.go.kr

women by David demonstrate that he had lost God's justice and love. Furthermore, through this critique, the author implies that God's concern lies with justice and love for the weak and marginalized, providing a basis for us to interpret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and the vulnerable.

key words

Ten Concubines, Tamar, David, Absalom, rape, intertextuality

투고일: 2025년 04월 12일

심사일: 2025년 05월 1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5월 21일

www.kci.go.kr